

보도시점 2026. 3. 25.(수) 11:00
3. 26.(목) 조간 배포 2026. 3. 25.(수) 09:00

봄 가뭄 대비 선제적 용수 확보 및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정비 추진

- 저수율 낮은 저수지는 하천수를 끌어 올려 채우고, 용수공급 시설과 장비는 가뭄 발생 시 즉시 지원·가동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강수량이 적고,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 상황과 관정·양수장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3월 23일 기준)은 평년 78.6%보다 약간 높은 81.7%로 관리되고 있으나, 올해 누적 평균 강수량(1월 1일 ~ 3월 23일)은 59.3mm로 평년(107.0mm)의 55%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봄철 적은 강우가 지속될 경우 농작물 생육이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28개소 중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15개소에 대해 하천수를 끌어 올려 저수지 물을 채우는 한편, 용수로에 직접 급수하는 등 용수확보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62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가뭄대비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중이었으나, 겨울철 강수량 부족 상황을 반영하여 115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올해 영농기 전 가뭄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수량을 평년의 70%로 가정하여 4월 30일 저수율이 평년의 60%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수지

또한, 필요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관정과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정비한다. 전국 공공관정 4만1천 공, 양수기 2만6천 대, 송수호스 3천3백km에 대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체 점검한 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영농기 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 수질검사 등 시설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농촌용수 부족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물 부족 지역에 관정, 양수장, 저수조 등 용수공급 시설을 지원하는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영농기 전 완료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여 올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가뭄 우려 지역을 영농기 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5년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정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재천 (044-201-1851)
		담당자	사무관	심영건 (044-201-1863)



<2025년 현장점검 시 양수저류 실시 확인>



<2025년 현장점검 시 양수장비 보관창고 점검>



<2025년 현장점검 시 관정 점검>